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며……

북악중학교 2학년 1반 정 행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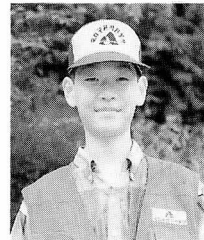
자원봉사첫날 (1996년 7월 23일 화요일)

땅 속에 엄청난 쓰레기가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수장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방을 싸고 같이 가기로 한 은성이와 북한산에 갔다. 조금 올라가니 관리 사무소가 나왔다. 들어가 보았더니 은성이와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둘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온다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1명인줄 알았더니 2명이었다. 1명은 내가 아는 친구였다. 아저씨 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산에 올라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별로 없었다. 오후에 점심을 먹으니 정말 맛있었다. 쓰레기를 주으러 가는데 웬 삼과 3개의 날이 있는 갈퀴(?)를 가져갔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땅을 팠다. 땅 속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다. 계속 파다가 보니까 **박카스병과 캔이 나란하게 한 줄로** 묻혀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썩지도 않는 병이나 캔들을 땅에다가 묻었을까? 너무 지저분했다. 내가 알기에는 병이나 캔들은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나 간다. 옛날에 쓰레기를 줍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자리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을 것이다.

내가 봉사활동을 여기서 하는 것은 잘한 일 같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였다. ♣



정 행 철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과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자원봉사 2일째—————(1996년 7월 24일 수요일)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고파 ...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져 가려고 하였지만 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에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관리 사무소에 가서 먼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전에는 육현이와 홍철이, 은성이와 내가 한조가 되어서 두팀으로 갈라져서 쓰레기를 주우러 갔다. 우리와 같이 온 아저씨가 이나무 저나무의 명칭을 가르쳐 주셨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오후에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다. 정말 꿀맛이었다. 점심을 다 먹고 북악매표소로 차를 타고 갔다. 내가 맨끝에 앉아서 덜 경거러릴때 부딪히기는 하였지만 편안히 매표소에 도착을 하였다. 쓰레기를 주워 가면서 어느 약수터로 갔다. 약수터 근처에는 무엇을 태웠는지 냄새가 독하게 났다. 그리고, 약수터는 시멘트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느 바위 밑은 까맣게

그을리고 향료와 물을 떠 놓은 그릇이 있었다. 아저씨와 약수터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실랑이를 벌이시는 동안에 청설모와 비둘기가 사람들이 먹다버린 음식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공을 들이는 것은 좋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치우고 조금 더 가보니 심곡사가 나왔다. 어떤 스님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시멘트로 길을 바르고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이 냇가 근처에 있고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 오늘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람과 물건들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저씨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좋아서 **장래의 꿈**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자원봉사 3일째—————(1996년 7월 25일 목요일)

음식물 쓰레기 … 산짐승들이 먹고 방부제 때문에 종족을 번식시킬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 !

오늘은 다른 날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집을 뛰어 나왔다. 버스가 잘 오지 않았다. 결국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뛰어서 겨우 도착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이 먹다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산짐승들이 먹고 알을 낳는 동물은 음식물에 들어 있는 **방부제** 때문에 알껍질이 얇아져서 알을 품기만 해도 깨지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장 주의해서 주웠다. 그리고, **북한산이 점점 산성화**되어 가면서 산에 있는 **나무 종류가 줄어든다**는 말도 들었다. 지리산과 같은 깨끗한 산에는 나무의 종류가 **약 25종** 정도가 되는데 북한산은 **약 7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북한산이 오염물질에 의해서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내가 거의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나 자동차 때문에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떠 다니고,

그 오염물질이 구름과 섞여 비로 내리면 나무들이 죽어 버리고 땅에 스며든 물이 다른 물과 섞여 결국은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먹은 물이 더러운 물이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죽은 나무의 밑부분에서 새 가지에 파릇파릇한 잎이 희망찬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북한산도 다시 그렇게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북한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들도 희망을 가지고 보살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봉사 4일째—————(1996년 7월 26일 금요일)

사람들의 자연을 훼손하고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너무 대조적 !

새벽부터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 산에서는 비가 오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비가 와도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오는 날은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서 출발을 하였다.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 아무래도 하루종일 내릴 것 같았다. 내 예상대로 사무실에서는 비디오를 보고 소견서를 쓰는 것이다. 비디오의 제목은 “북한산은 살아 있다”였다. 비디오의 줄거리는 북한산의 위치, 북한산에서 사는 생물, 북한산의 환경 파괴, 북한산의 환경 보전 등이었다. 북한산은 양쪽에 마치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는 것처럼 산을 거느리고 있다. 비디오 속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늑대같은 큰 포유류도 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 비디오를 찍는 취재팀은 어느 등산객이 비닐 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를 빼앗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 주었다. 그밖에도 도롱뇽, 개구리, 애벌레 등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특히, 도롱뇽과 올챙이는 아주 잔혹했다. 자기의 동족을 서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하였다. 사람들의 자연을 훼손하고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너무 대조되었다.

사람들은 왜 자연을 훼손할 때는 자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자연

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부터 자연을 보존하려 하는 것일까? 애초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자연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었을 텐데 …… 뉴스 보니 희소식이 있었다. 난지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 자연조차 버린 줄 알았던 난지도가 자기 스스로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 더 생겼다. 우리도 더 노력해서 산을 살리자. ♣

자원봉사 5일째—————(1996년 7월 27일 토요일)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워 버린다고 하는데 ……

오늘은 트럭을 타고 북악 매표소에 가서 쓰레기를 묶어 트럭에 실어 날랐다. 이야기를 듣기에는 무단들인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쓰레기도 무단으로 태워 버린다고 한다.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대로 모아서 트럭에 싣고 그냥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한쪽에 실었다.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에 벌이 너무 많아서 쏘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한군데도 다치지 않았다. 다시 트럭을 타고 사무실쪽으로 향하였다.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가 급하게 운전을 해서인지 덜컥거리고 무서웠다. 운전하는 아저씨가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일을 끝내고 제일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었다.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어머니께 감사를 하고 먹느냐는 말에 갑자기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사무실 근처에서 물에 있는 돌을 들어 올렸다. 일하는 도중 도중에 비가 왔다. 그런데, 일이 막 끝나갈 무렵 어떤 누나(중3)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일을 도우려 하였다. 그런데 게으름만 부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비가 계속 쏟아져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저씨들은 누나들에게만 과자를 주고 우리는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

을 보람있게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

자원봉사 마지막 날—————(1996년 7월 28일 일요일)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돌을 실어 날랐고 안전 확인도 ……

10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하려고 은성이 집에 갔는데 은성이 늦잠을 자서 늦게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10시에 맞추어서 도착을 하려고 서두르고 버스에 탔는데 한 정거장을 가니까 옥현이와 홍철이가 같은 버스에 탔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와서 버스가 멈추기가 무섭게 뛰어 갔다.

매표소 근처에서 아저씨가 트럭을 태워 주셔서 쉽게 사무실까지 갔다. 가서 옷을 입고 도시락을 들고 보국문까지 가기로 하였다. 오늘 새벽에 내린 소나기 때문에 물이 이곳 저곳으로 흘러 내려 갔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돌을 실어 날랐다.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고 안전한가도 확인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흙이 물에 떠 내려가고 있었다. 물을 막고 수로 쪽으로 돌맹이를 놓아서 물이 한쪽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에서 쓰레기도 주웠다. 보국문까지 가는데 아저씨들은 막 뛰어가지도 않고 같이 걸어 가는데 우리들은 지쳐서 잘 가지 못하였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었지만 보국문까지 가서 먹는다고 하여서 힘이 들었다.

오늘이 일하는 날의 마지막이다. 정이 들었던 아저씨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지만 다음에도 만날 수 있으니 너무 섭섭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아저씨들 !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